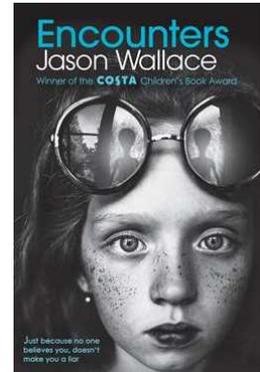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ENCOUNTERS
가제 : 조우
저자 : Jason Wallace
출판사: Andersen Press
발행일: 2017년 5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데뷔소설 「**Out of Shadows**」으로 2010년 코스타 상(**Costa Book Award**)을 수상하고 심사위원단에게 '버릴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평을 받은 유능한 작가의 두 번째 YA 소설
- * "강력한 독창성을 지닌 작가가 쓴, 깜짝 놀랄만한 신작" – YA 소설가 팀 보울러(**Tim Bowler**)

광활한 하늘을 한참 들여다보면 그 뒤에 무한하게 펼쳐진 미지의 세상, 우주는 어떤 곳일까 라는 호기심이 자연히 피어난다. 망원경과 같은 관측 기술이 크게 발달하고 우주 탐사가 이루어지면서 그저 반짝이는 별로만 보이던 하늘 뒤에 무수한 은하가 점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더 큰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우주의 실체와 새로운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기대 혹은 불안감은 가끔 세계 곳곳에서 미스터리한 존재가 목격되었다는 뉴스로 더욱 현실성 있게 다가오곤 한다. 데뷔작으로 발표한 YA 소설로 코스타 상을 수상하며 재능을 인정받은 저자는 1994년 9월, 짐바브웨의 어느 학교 운동장에 나타난 외계 생명체와 그 기겁할 만한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아이들의 목격담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 소설을 완성했다. 다섯 살부터 열두 살까지 무려 예순두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어디선가 나타난 비행선이 운동장 뒤편에 착륙하고 그 속에서 낯선 생명체가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저자는 짐바브웨의 학교를 똑같이 배경으로 하되, 여덟 살부터 열여덟 살의 목격자 여섯 명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 믿기 힘든 사건 이후 이들 각각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세밀하게 묘사한다.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레다 스쿨의 상공에 나타나 점점 운동장 쪽으로 내려오더니 급기야 착륙을 한 후, 관심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이 빈번한 아이들의 특성상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교장은 아이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고, 비행체가 착륙했다는 나무 근처에서 시커멓게 탄 자국을 확인했다. 2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아온 베테랑 교사도 아이들이 전한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꾸미거나 과장한 일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는 여섯 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미국에서 온 정신의학 전문가들 여럿이 직접 이

아이들을 만나러 찾아온다. 놀랍게도 개별 면담에서 여섯 명의 아이들은 어긋나는 부분이 전혀 없이 똑같은 진술을 하고, 당시 장면을 그려보라고 하자 거의 똑같은 결과물이 나온다. 사건 직후만해도 아이들이 받은 충격이 극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여파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불안정한 가정에서 살던 개리는 극심한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고, 클로에는 속으로 엄청난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도 하루 종일 입을 꼭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버렸다. 교장의 아들인 칼은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일을 당하고, 텐다이는 자신에게 무거운 기대를 걸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그리고 그 날 외계 생명체가 나타나는 상황을 전부 목격한 식스펜스는 다른 목격자들과 자신이 절대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섯 명의 아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에 깊이 억눌려 있지만 왜,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지 설명할 길을 찾지 못한다. 이들을 상담하러 온 정신의학자 중 한 사람의 딸, 흘리는 목격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집단 히스테리인지 정말 외계 생명체와 조우한 뒤 충격으로 빚어진 결과인지 파헤치려는 의사들 틈에서 아이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 귀중한 사실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한다.

드넓은 우주 속에서도 지구,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은 다 특별하며 소설 속 여섯 명의 아이들이 지나온 삶과 바뀌어버린 삶 또한 그러하다는 작가의 설명처럼, 조금씩 밝혀지는 이 아이들의 인생은 훨씬 더 어둡다. 누구라도 자신들의 말에 오롯이 귀를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해결해주려고 나서는 어른들, 이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건 그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소설의 중심이 되는 UFO는 가상의 물체인 동시에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우하는 낯선 상황을 의미한다. 작가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과 현명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존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아이들의 세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생생히 보여준다.

<저자 소개>

제이슨 윌리스(Jason Wallace)는 2010년 데뷔소설 『Out of Shadows』으로 코스타 상(Costa Book Award)을 비롯해 브랜포드 보스 어워드(Branford Boase Award), UKLA 상(UKLA Award)을 수상했다. 영국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한 엄마와 함께 짐바브웨로 이주하여 기숙 학교에 다녔다. 현재 런던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며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MONSTROUS DEVICES

가제 : 괴상한 장치

저자 : Damien Love

출판사: Viking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8년 가을

분량 : -

장르 : YA 소설



* 인디애나 존스 첫 번째 에피소드 '레이더스'의 원작 『*Raiders of the Lost Ark*』와 영화 '토이스토리'가 결합된 어드벤처 소설

* 잠에서 깨어난 로봇과 로봇의 이상한 기능과 관련된 한 가족의 오랜 비밀, 영국, 파리, 프라하를 무대로 펼쳐지는 스릴 넘치는 추격전

열세 살 생일을 며칠 앞둔 알렉스 앞으로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프라하에서 할아버지가 미리 보낸 생일선물은 여러 겹의 신문지로 꼼꼼히 싸여 있었는데, 알렉스가 조심스레 풀자 아주 낡은 로봇인형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주 특별한 놈이니 잘 보살펴라.” 할아버지가 동봉한 메시지를 떠올리며 알렉스는 찬찬히 인형을 뜯어보기 시작했다. 내일까지 내야 하는 글짓기 숙제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더 써지지가 않아서 멍하니 방안을 둘러보다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할아버지 선물을 들여다 보게 된 것이다. 알렉스의 책상 위에 설치된 2단 선반에는 할아버지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수집한 인형들이 즐지어 있었다. 알렉스가 중고 상점이나 베품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할아버지가 일찍부터 모은 것들이었다. 대부분 태엽장치가 달려 있거나 건전지로 움직이는 로봇들인데, 이번에 선물 받은 건 이 모든 수집품을 통틀어 가장 오래된 로봇처럼 보였다. 철로 된 로봇의 몸체와 투박한 가슴팍, 불룩 튀어나온 팔다리를 유심히 보던 알렉스는 두 눈이 작은 구멍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데 모서리가 날카롭게 마감된 탓에, 알렉스의 손가락이 그 날카로운 철재 모서리에 찔려 피가 뚝뚝 흐르고 피할 새도 없이 인형의 눈에 피가 고인다. 얼른 휴지를 가져다가 로봇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던 알렉스는 그 작은 구멍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자세히 보려고 불빛 아래 더 가까이 댄 순간, 이상하게 머리가 핑 도는 기분이 들더니 앞이 어지러워지고 알렉스는 그대로 책상에 쓰러진다.

엄마 고향소리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날이 흰히 밝은 뒤였다. 어안이 병병해진 알렉스는 엄마가 30분째 불려도 기절한 듯 잠들었다는 잔소리에 귀를 기울일 정신도 없이, 숙제를 하다가 잠들어버린 사실을 깨닫고 초조해진다. 10분 뒤면 스쿨버스가 올 텐데 이대로 등교하면 혼날 것이 뻔한 상황이라 안절부절 하던 알렉스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기겁한다. 분명히 800자밖에 못 쓴 숙제가 완성되어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숙제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후, 여행에서 돌아온 할아버지는 알렉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날 밤, 알렉스가 인형을 '깨웠다'는 것이다. 급기야 자그마한 장난감

로봇 여러 개가 한꺼번에 깨어나 알렉스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생일 선물로 만든 인형을 훔치려고 한다. 대체 그저 평범한 로봇인 줄 알았던 이 인형에 어떤 비밀이 숨겨진 것일까? 할아버지와 알렉스는 인형에 얽힌 역사를 알아내기 위해 파리로 떠나지만 사악한 세력이 두 사람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한다. 로봇을 훔쳐다가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끈질기게 따라 붙고 로봇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에 두 사람은 한 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설 새 없이 도망치던 와중에 할아버지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가 벌어지고, 다행히 할아버지의 목숨은 지킬 수 있었지만, 이제 알렉스 혼자 인형의 비밀을 풀고 악당들의 계락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겨우 회복한 할아버지를 모시고 악당들을 피해 프라하로 건너간 알렉스는 여러 곳을 수소문하던 중 마침내 이 낡은 로봇의 작동 원리와 강력한 힘을 알게 된다. 그런데 로봇의 힘을 빌어 프라하를 가까스로 빠져나가려던 찰나, 두 사람 앞에 키가 큰 남자가 나타나 정신차릴 새도 없이 로봇을 작동시키고, 프라하 전체가 통제 불가능한 혼란 속에 묻히고 만다. 급한 마음에 알렉스는 로봇을 강에 내던져 없애버리기로 결심하는데, 로봇을 버리면 이 모든 사태가 정말 해결될까? 알렉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 없는 아버지의 정체는 로봇을 둘러싼 집안의 비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드벤처와 호러 장르가 적절히 조합된 소설로, 팽팽한 긴장감과 짜릿한 모험의 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알렉스의 할아버지가 왜 인형을 모으기 시작했는지, 알렉스의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

<저자 소개>

다미엔 러브(Damien Love)는 「가디언(The Guardian)」, 「선데이 헤럴드(The Sunday Herald)」, 「언컷(Uncut)」 등 다양한 간행물과 영화, 음악, TV 분야에 글을 기고하고 제공해 왔다. 글래스고에서 살면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